

시·도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출 관심 집중

전남 전국 첫 12월 15일 선출...광주는 금명간 결정 자천타천 하마평 무성...선거인단 확보가 당락 변수

광주시, 전남도체육회 사상 첫 민간회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전남도체육회는 21일 전남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15일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수인 선거인수 등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체육회장은 회원총대체, 시·군체육회 등을 안배해 선정한 대의원(선거인)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선거인수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22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도 각 지역 일정이 마련되는 대로 치러진다.

전남체육회장 선거는 접화됐다. 전남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시체육회는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최근 출마를 위해 사임했고 허정인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직을 내놓았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 의장, 서정복 전남도체육회 고문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6일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정했고,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못박았다. 광주의 선거인수도 300명을

웃돌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광주 5개 지구도 체육회장을 뽑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계에서 시체육회장 하마평에 오르려는 인사는 박재현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백남길 시체육회 부회장, 양진석 시체육회 부회장, 전학철 시체육회 부회장(이상 가나나순) 등이다.

시·도체육회가 선거제도로 돌입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통과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각종 선거에 체육 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래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개정된 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전에 광주·전남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 체육회까지 회장을 일제히

새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 체육인들은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않을 경우 시·도체육회와 지자체 실무팀에 예산 지원을 축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지방 체육 단체는 예산과 시설 이용 등 거의 모든 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한다. 공공 체육시설도 지자체 소유이며, 지자체는 체육 단체 예산의 95%를 지원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과 새로 선출되는 체육회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면 체육 단체 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자체 산하 실무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방 체육인들은 걱정한다.

한 체육계 인사는 "지자체의 예산 축소는 시·도 체육회 조직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지방체육을 위축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어촌 뉴딜 300’ 사업 규모 확대 필요”

서삼석 의원 “소규모 어항 1883곳...경쟁 아닌 균형 이뤄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에서 “어촌뉴딜 300’의 전면적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촌뉴딜은 여객선이 기항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어촌 어항 사업을 통합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촌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모를 통해 300곳을 선정하며 한 곳당 100억~150억원의 규모로 시행된다.

어촌뉴딜이 시행된 첫해인 올해는 70곳 선정에 143곳이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은 100곳 선정에 250곳이 지원,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이며, 조건이 동일한 지역 간 경쟁의 의미는 아니다”며 “전남은 지방 어항과 소규모 어항이 전국(2183곳)에서 48.8%인 1065곳”이라고 밝혔다.

또 “기항지도 211곳(전국 대비 비율 61.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 선정 결과를 보면 전남은 지역수 37%, 사업비로는 33%로, 대상지 비율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183곳 중 300곳을 제외한 선정 받지 못한 소규모 어항 1883곳은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촌 뉴딜 300이라는 명칭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상지를 더 늘려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경심 영장 기각뎀 거센 후폭풍

검찰, 영장 청구 승부수...발부뎀 수사탄핵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1일 고심 끝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권과 서초동 집회 등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최근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지만 검찰은 수사원칙을 명분 삼아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온 검찰 수사는 핵심 인물인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1차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 대다수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데다가 구속수사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적용한 혐의만 10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수사 개시 이후 두 달 가까이 55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부터 영장 청구 시기가 압박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

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기한 건강 문제 등에 부딪혀 당초 계획보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이 과거 사고로 인한 뇌부상 후유증 때문에 장시간 조사가 어려움을 호소한 점 등이 변수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애초 1~2회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소환조사 횟수는 지난 17일까지 7회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압·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을 가렸고, 이에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제출된 의료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로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이번 수사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남뉴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하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순사건 71주년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서훈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연남뉴스

초대 조정래문학상 성석제 ‘왕은 안녕하시다’

별교읍민회, 태백산맥문학관 11주년 기념 제정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

보성 별교에 자리한 ‘태백산맥문학관’ 벽면에 조정래 육필로 새겨진 문구다. 이는 조정래 문학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조각가의 모든 작품은 그 정신을 모태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백산맥’은 조정래 문학정신이 잘 발현된 대표작으로 꼽힌다.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고장인 보성군 별교읍에 ‘태백산문학관’이 개관(2008년 11월)한 지 올해로 만 11년이 됐다. 별교읍민회에서는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올해 ‘조정래문학상’을 제정했다.

보성군은 지난 10년 동안 태백산맥문학관이 독자들의 호응을 받은 데 대한 보답으로 그 연장선에서 문학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정래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고 뛰어난 작품을 쓰는 중견 작가들을 격려해 창작열을 북돋우자는 취지다.

상금은 1억 원으로 국내 문학상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중견 작가들이 일정 기간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에 전념해 뛰어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국내 문학상 가운데는 동인문학상, 김승옥문학상, 혼불문학상 등이 각각 5000만 원을 수여한다.

올해 제1회 조정래문학상 수상자로 ‘천하무적 입담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성석제 작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왕은 안녕하시다’ (2권).



성석제 작가는 그동안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리 문학의 힘을 문학 작품으로 증명해온 중견 작가다. 그에게는 ‘입담과 해학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천상 이야기꾼’이라는 수사가 따른다.

수상작 ‘왕은 안녕하시다’는 올해 초에 발간된 장편소설로 조선 숙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유연히 왕과 의형제를 맺게 된 주인공 성형의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유장한 필치로 전개된다.

한편, 조정래문학상의 수상 대상 작품은 당해 연도부터 3년 이내에 발표된 장편 소설과 소설집으로 제한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작가, 문학평론가, 문학 전공 교수, 각 문예지 편집장, 일간지 문학 담당자들에게 추천을 의뢰하고 그 중에서 10여 편을 본심에 넘긴다. 이후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을 결정한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2일 오후 6시 별교특설무대에서 있을 예정이다. 성 작가는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투명인간’ 등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송갑석 “소상공인 지원센터 한계...맞춤형 정책 필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인력 부족과 정책적 한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지역 지원센터 인력은 422명으로 지자체 한 곳당 2.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모두 3곳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14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체 수는 9만4000여개, 종사자 수는 18만5000여명에 달한다”며 “정책 실행을 담당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체 인허가와 민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초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고, 중소기업 정책과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업체들이 느끼는 문제”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이 전국에 고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의 일상적 민원을 접수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센터(가칭)’ 등 사업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야

바로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 자문

금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장흥동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창고 137㎡ 전방 출몰 2억5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지에 출몰 1억9천
- 무안군 창계면 도림리 목포대항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울산동 농성초교 옆 도로점 2중 주택 땅 140㎡ 집 153㎡ 2억2천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출몰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스 147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도로 4323㎡ 유통시설·정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출몰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할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방 출몰 1억3천

상가건물

- 운남동 아파트단지 인근 땅 1124㎡ 5층 건물 1733㎡ 임대중임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지 206㎡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카피출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물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빌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출몰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대체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환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9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필시, 생활민중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8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97 (0)메일 kss2377@han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 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위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s://cafe.daum.net/ihmygg> 참고